

삼성 KPMG

ISSUE MONITOR

제102호

February 2019

삼성KPMG 경제연구원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

김수경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3973

sookyoungkim@kr.kpmg.com

차윤지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6914

yoonjicha@kr.kpmg.com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3
국내 외식산업 Overview	4
외식업의 정의 및 특성	4
국내 외식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	5
국내 외식 시장 현황	6
[Issue Brief] 글로벌 외식산업 현황	8
글로벌 외식 업계 투자 동향	9
(1) 글로벌 외식 업종으로의 투자 추이	9
(2) 해외 주요 사모펀드의 외식업 투자	10
(3) 해외 사모펀드의 외식업 투자 회수	12
시사점 및 투자 전략	15
Appendix	18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와 함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맞물려 과거 대비 외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외식산업은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외식산업 역시 성장하고 있다. 외식업은 최저임금·임대료·원재료비 상승, 경쟁 심화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에 따른 직격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산업으로, 과거 대비 최근 국내 외식업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되나 시장규모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특성상,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국내외 투자처 및 관련 업계로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왔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외식 시장의 현황과 글로벌 외식 업계 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외식 기업 및 외식 업종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ecutive Summary

■ 국내 외식산업 Overview

- 외식산업은 가정 외의 장소에서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모든 업종을 의미하며, 경제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인구구조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에 따른 영향을 받음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과거 대비 강화되고 있음. 국내 월평균 외식 빈도는 2013년 12.5회에서 2017년 14.8회로 증가
- 국내 가구의 전체 지출 중 외식비 지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외식 시장 규모와 사업체 수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 글로벌 외식 업계 투자 동향

- 글로벌 외식산업 역시 외식 소비행태의 변화 및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글로벌 외식업으로의 투자는 지속되고 있음
- 해외 사모펀드(Private Equity)의 외식 업종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투자를 통해 다수의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상당수 존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JAB홀딩,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골든게이트캐피탈 등 해외 주요 사모펀드는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동시에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외식 브랜드를 위주로 활발히 투자
- 사모펀드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외식 브랜드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 사모펀드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인수한 후,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와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신시장 개척, 신메뉴 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IPO(기업공개), 타 사모펀드로의 매각(Secondary Sale) 등과 같은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

■ 시사점 및 투자 전략

- 국내 외식업 경기 둔화 및 국내 정책·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는 가운데, 외식업 투자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장기적·구조적 관점과 사회 변화 동인에 대한 분석임.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경제 환경의 변화 요인에 주목하며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투자해야 하며, 외식업의 다양한 섹터 중 유망 섹터를 선별하며 외식 브랜드 중 옥석을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
- 투자 회수를 위한 엑시트(Exit) 플랜으로 세컨더리 세일 또한 검토 가능. 일본 외식업 등 해외 외식산업에서는 세컨더리 세일이 활성화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세컨더리 세일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국내 외식산업

Overview

“ 외식업은 경제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인구구조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으며, 외식산업의 트렌드도 지속적으로 변화 중 ”

외식업의 정의 및 특성

외식업은 가정 외의 장소에서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업종을 의미한다. 외식업은 테이크아웃(Take-out)과 배달, 단체 급식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외식산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외식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경제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구분 가능하다.

외식산업은 생활필수품인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으며, 가계 소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식생활이 필수적이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라는 특성에 따라 외식산업은 타 산업 대비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심리 변화에 덜 민감하며, 소득 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기술의 발달 또한 외식산업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 오더,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이 등장하며 외식 서비스 제공 방법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아울러 외식산업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소비자 기호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서구식 음식 문화의 확산, 특정 음식의 선호 증가 등 다양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 외식 메뉴의 라이프사이클은 상당 부분 변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트렌드 변화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외식 메뉴의 라이프사이클 주기 역시 단축되는 추세이다.

외식산업은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1인 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등의 변화는 외식산업의 수요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식산업 내 트렌드를 바꾸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식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외식산업의 특성 및 외식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

- 외식산업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식료품을 제공한다는 특성을 지니며, 가계소비와 밀접히 연관됨
-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비교적 낮음

기술적

- 첨단기술 발달로 서비스 제공 방법의 변화
- 스마트 오더, 전자 메뉴판, 푸드 서비스 테크,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의 도입

사회·문화적

- 소비자 기호 변화 및 트렌드에 민감
- 소비자 기호 변화에 따라 세부 업종별 유행 주기가 달라지며, 메뉴 교체 주기가 가속화

인구구조적

- 주요 소비 세대의 변화에 따른 세대별 가치관, 풍속 등에 따른 영향
- 1인 가구, 핵가족화 등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Source: 언론 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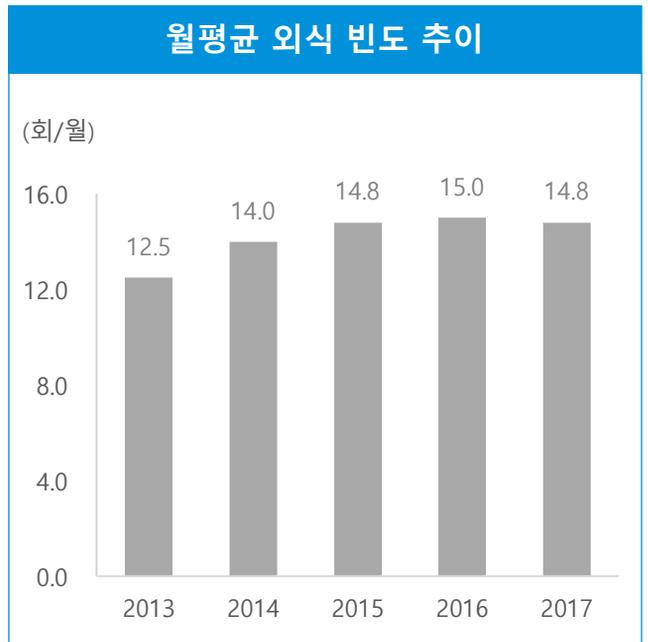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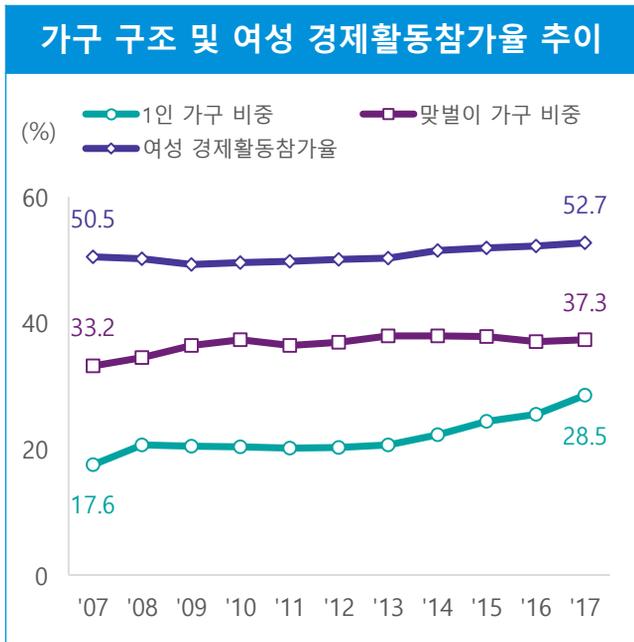
국내 외식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집에서 밥을 해먹기보다 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7년 전체 가구 중 17.6%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에 28.5%로 크게 확대됐다.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7년 33.2%에서 2017년 37.3%으로 상승했다. 다시 말해, 1인 가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 1·2인 가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며 주요 가구 형태로 부상한 것이다. 2017년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 비율 역시 10년 전인 2007년 50.5% 대비 2.2%p 상승한 52.7%에 달한다.

“ 1·2인 가구 확대 및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으로 소비자의 외식 소비 행태 변화가 가속화되고, 궁극적으로 외식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는 단순 주요 가구 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로 인해 인구구조 변화가 진전되면서 외식 소비 행태가 변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요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여유가 없어진 1·2인 가구는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해먹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외식 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등 인구구조 변화는 외식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함께 바깥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월평균 외식 빈도가 과거 대비 상승하고 있다. 2013년 평균 12.5회 수준이던 월 외식 빈도는 2017년에 14.8회를 기록한 바 있다. 즉, 한 달의 절반 정도를 바깥에서 식사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외식 빈도 역시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통계청

Note: 2017년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17년 4분기 기준이며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임

Source: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국내 외식 시장 현황

가구 소득 수준 개선, 외식 빈도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외식에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국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외식에 지출하는 비용은 34만1,000원으로 2010년 32만3,300원 대비 5.5% 확대됐다. 한편 전체 가구의 총 소비지출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전체 가구의 월평균 외식비는 총 소비지출 대비 12.7%를 나타냈으나 2017년에는 13.3%의 비중을 기록하며 0.6%p 확대된 바 있다.

“ 국내 가구의 월평균 외식비는 2010년 대비 2017년 5.5% 확대... 외식비 지출 상승의 영향으로 외식 시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9.9%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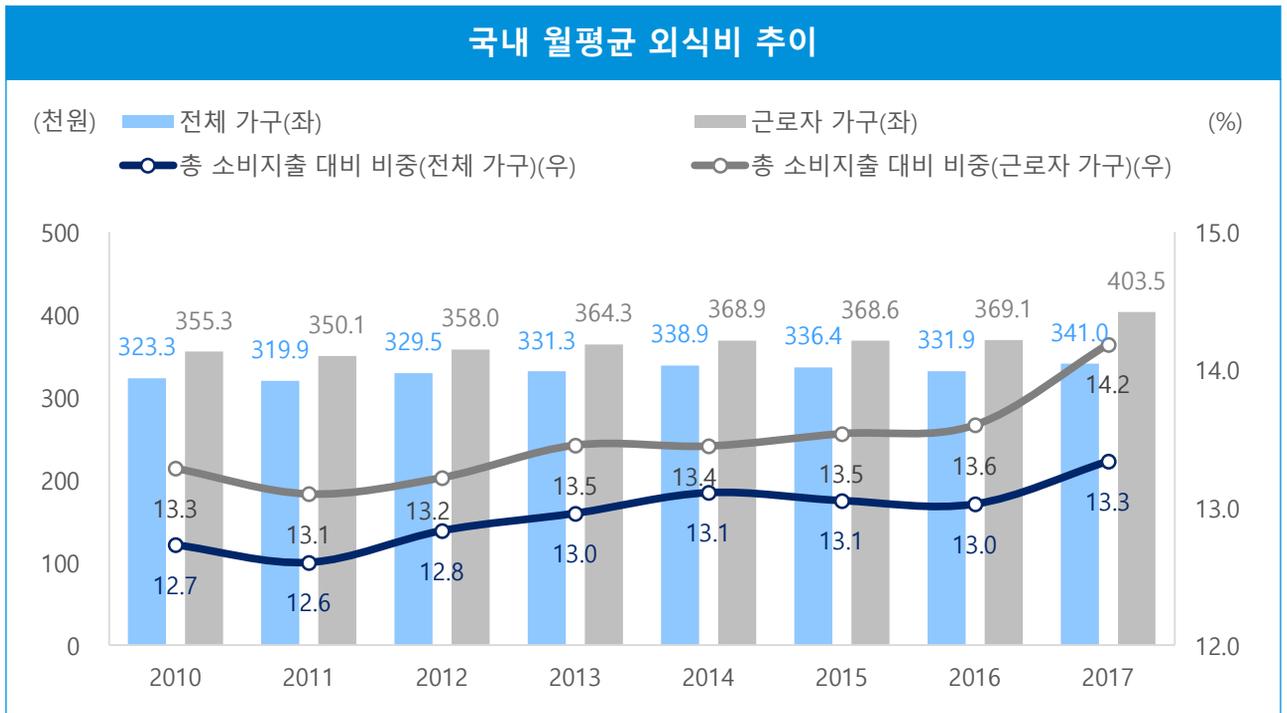


한편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외식비는 2010년 35만5,300원에서 40만3,500원으로 더욱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근로자 가구의 총 소비지출 대비 외식비 비중은 2007년 13.3%에서 2017년 14.2%를 기록한 가운데, 상승폭은 전체 가구보다 크게 기록됐다.

이 같은 월평균 외식비 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외식 시장 역시 성장을 지속해나갔다. 2016년 국내 외식 시장은 전년대비 10.0% 확대된 119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국내 외식 시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9.9%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체 외식 사업체 수는 시장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2010년 58만6,000개 수준에서 2016년 67만5,000개로 확대됐다. 그 중 음식점업은 2010년

국내 월평균 외식비 추이



Source: 통계청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42만 5,900개에서 2016년 48만 3,100개로 13.4% 증가했고, 주점업 및 비알콜음료점은 동기간 20.0% 늘었다. 아울러 음식점업 사업체 1개당 연간 매출액 역시 2016년 1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1%, 2010년 1억1,530만원 대비 52.6%로 큰 폭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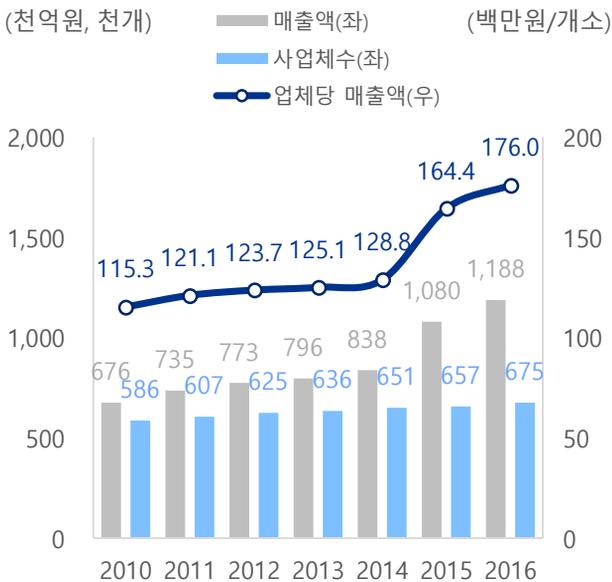
“향후 외식 수요는 증가할 것이나 성장세는 다소 둔화... 소비 심리 위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업계 내 불확실성 심화

외식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선제적 대응 마련 필요”

한편,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내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와 소비지출전망, 외식비 지출전망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외식 업종은 부분적으로 향후 경기 흐름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외식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정부 규제 등의 리스크 요인과 더불어 외식 시장의 포화로 한계에 놓인 일부 외식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외식 업계는 당분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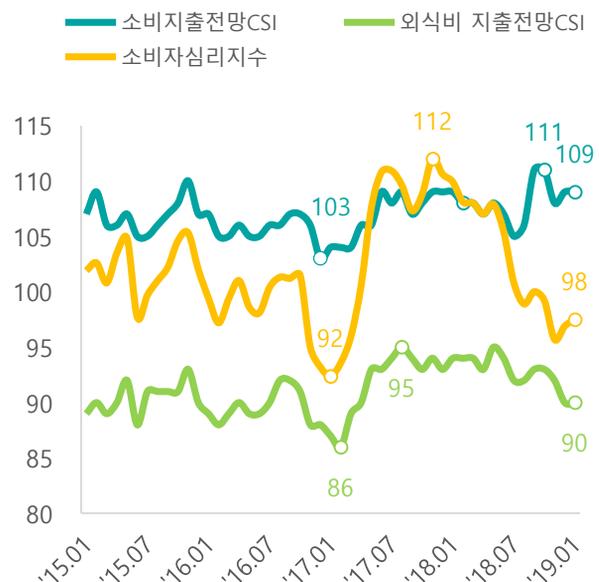
한 때 견조한 성장을 지속했던 국내 외식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 둔화되며 불확실성이 다소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확대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 등으로 외식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급변하는 트렌드를 포착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장 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외식업 매출액 및 사업체수 추이



Source: 통계청
Note: 2017년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17년 4분기 기준이며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임

소비자동향지수 추이



Source: 한국은행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Issue Brief] 글로벌 외식산업 현황

오늘날의 바쁜 현대인들은 요리를 직접 하기보다 외식 및 배달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외식산업은 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글로벌 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막대한 인구와 소득 증대에 힘입어 타 지역 대비 외식산업이 더욱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 외식 시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48.2%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홍콩 역시 동기간 22.6%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중국·홍콩 등 중국 문화권의 소비자들이 집이 아닌, 집 밖에서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 과거 내식을 선호해왔으나, 최근 외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동기간 연평균 성장률 21.8%를 기록했다. 이처럼 외식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데는 프랜차이즈 외식산업의 확대가 일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랜차이즈 산업과 비프랜차이즈 산업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성장률을 살펴보면 각국의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비프랜차이즈 외식산업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에도 글로벌 외식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그 성장세는 이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한국이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업종별로는 비프랜차이즈 대비 프랜차이즈 외식산업의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외식산업의 발달이 거듭될수록 중소기업 위주의 비프랜차이즈보다 브랜드화 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다수 생겨나는 경향이 있다. 즉, 외식산업의 체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외식 수요 및 성장세가 비교적 높은 중국, 한국의 외식산업에서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국 외식산업 규모 및 성장률 》

(십억 달러, %)

	전체			프랜차이즈			비프랜차이즈		
	매출액 (2017)	'12~'16 성장률	'18~'22 성장률 전망	매출액 (2017)	'12~'16 성장률	'18~'22 성장률 전망	매출액 (2017)	'12~'16 성장률	'18~'22 성장률 전망
중국	4,337	48.2	17.7	397	54.0	33.7	3,939	47.6	16.1
대만	641	12.3	5.6	229	24.4	10.9	413	6.6	2.6
미국	560	16.9	8.9	299	19.4	12.3	262	14.1	4.9
홍콩	120	22.6	9.2	50	37.4	10.7	70	14.0	8.1
한국	87	21.8	11.6	35	43.9	16.7	52	10.2	8.2
이탈리아	77	-3.8	-0.3	5	11.3	5.0	72	-4.8	-0.7
프랑스	50	-1.9	6.0	15	11.8	19.2	36	-6.6	0.6
일본	22	6.0	2.0	11	11.2	3.0	11	1.5	1.0

Sourc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romonitor

Note: 국내 통계청의 외식산업 매출액 집계와 Euromonitor 집계 결과는 각 기관의 분석 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글로벌 외식 업계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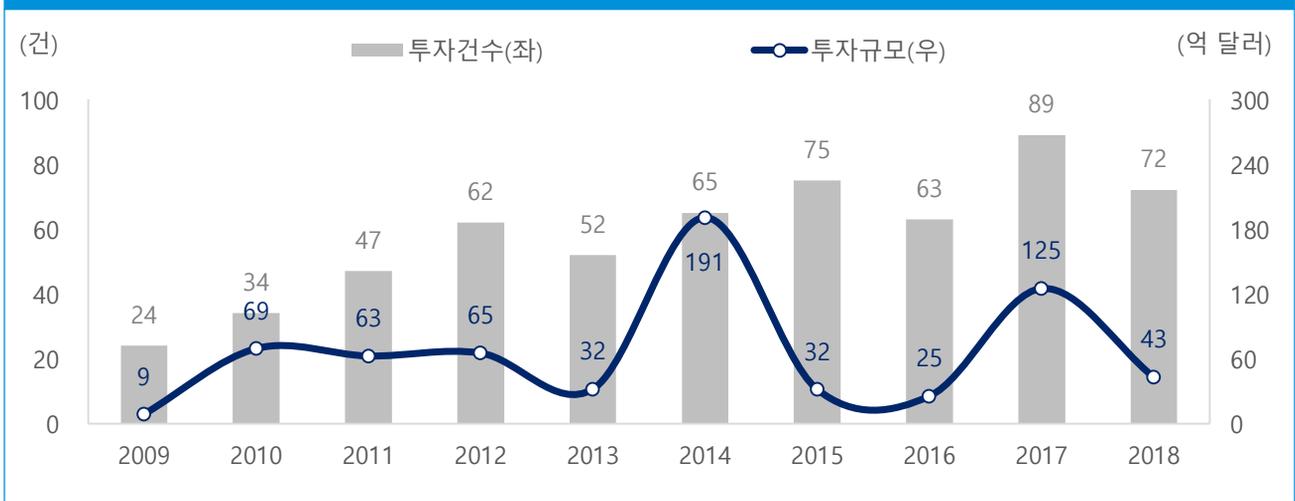
(1) 글로벌 외식 업종으로의 투자 추이

전통적으로 외식업은 식음료 업종으로, 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연관성이 높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처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최저 임금·임대료·원재료비 상승, 각종 정부 규제, 경쟁 심화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외식보다는 배달 혹은 집에서 가정간편식을 조리해먹는 잇인(Eat in) 트렌드가 외식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국내 외식 시장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재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 국내 일부 사모펀드는 시장 내 다양한 흐름을 감지하고 외식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국내 투자자, 외식업에 대한 투자 축소 움직임 ... 반면 글로벌 외식 시장의 성장세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 ”

한편 글로벌 외식 시장을 살펴봤을 때 해마다 다소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나, 지난 10년간 외식업으로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해왔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글로벌 외식산업으로의 투자 건수는 연평균 약 44건을 기록한 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해마다 평균 약 73건의 투자가 이뤄지며 1.7배 증가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사모펀드 투자의 특성상 거래액 미공개 처리하는 일이 상당수로 전반적인 투자규모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투자액 미공개 거래건을 제외하고 살펴봤을 때 투자 총액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외식산업에 투자된 금액은 약 238억 달러로, 해마다 평균 투자금액은 48억 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최근 5년 동안은 투자총액이 약 416억 달러로, 해마다 약 83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외식산업 역시 외식 소비행태의 변화 및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투자자의 외식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외식산업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추이 (2009~2018)



Source: Bloomberg

Note 1: 사모펀드의 레스토랑 부문(Food Catering, Retail - Restaurants, Pubs)으로의 연간 투자 추이를 살펴봄

Note 2: 각 연도별 완료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N/A로 표시된 거래규모 미공개 건은 연도별 투자규모 합산 시 제외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2) 해외 주요 사모펀드의 외식업 투자

해외 주요 사모펀드는 외식 업종으로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해오고 있다. 블룸버그(Bloomberg) 및 M&A 전문분석기관 머저마켓(Mergermarket)을 통해 살펴본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외식업에 가장 활발히 투자한 사모펀드는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Apollo Global Management), 센터브릿지파트너스(Centerbridge Partners), 골든게이트캐피탈(Golden Gate Capital)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외 주요 사모펀드의 투자는 외식업의 세부 섹터에서 변화가 관찰된다. 과거 캐주얼 다이닝(Casual Dining)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에 투자 자금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 캐주얼 다이닝 대비 다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패스트 캐주얼(Fast Casual) 및 퀵 서비스 레스토랑(QSR: Quick Service Restaurant) 부문으로 투자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이들 사모펀드는 외식업으로의 투자를 통해 다수의 외식 브랜드를 인수하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계 JAB홀딩은 2014년 아인슈타인 노아 레스토랑

《 주요 사모펀드의 최근 10년간 외식업 투자 현황 (2009~2018) 》

(건, 백만 달러)

사모펀드	총 진행건수	주요 Deal (투자연도)	Transaction Value	Equity Value
Apollo Global Management	7	('18) Qdoba Restaurant	300	300
		('18) Casual Dining Group	N/A	N/A
		('15) Las Iguanas	1,310	948
		('14) CEC Entertainment	85	85
		('14) Casual Dining Group	N/A	N/A
		('14) Peter Piper	N/A	N/A
		('10) CKE Restaurants	1,010	699
Bain Capital Private Equity	3	('11) Skylark	3,390	2,099
		('11) Wendy's First Kitchen	N/A	N/A
		('10) Higa Industries	N/A	N/A
Centerbridge Partners	6	('18) Logan's Roadhouse	N/A	N/A
		('16) Old Chicago Pizza & Taproom	N/A	N/A
		('12) P.F. Chang's China Bistro	1,049	1,104
		('10) CraftWorks Restaurants & Breweries	N/A	N/A
		('10) Rock Bottom Restaurants	N/A	N/A
		('10) Gordon Biersch Brewery Restaurant	N/A	N/A
Golden Gate Capital	4	('17) Bob Evans Restaurants	615	565
		('14) Red Lobster Hospitality	N/A	N/A
		('11) California Pizza Kitchen	449	467
		('10) On the Border Mexican Grill & Cantina	180	180
JAB Holding	4	('17) Panera Bread	7,481	7,161
		('17) Au Bon Pain	N/A	N/A
		('15) Espresso House	N/A	N/A
		('14) Einstein Noah Restaurant Group	468	370
3G Capital	2	('10) Burger King Holdings	3,934	3,295
		('10) Restaurant Brands International	N/A	N/A

Source Bloomberg

Note: 2009.01.01부터 2018.12.31까지의 완료건(Completed). 외식 업종(Restaurants & Bars)에 대한 사모펀드투자(Private Equity Deals) 리스트 중 거래규모(Transaction Value)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투자한 주요 사모펀드 6개를 알파벳 순으로 나열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그룹(Einstein Noah Restaurant Group)을 인수한 데 이어 오봉팡(Au Bon Pain), 파네라 브레드(Panera Bread) 등 다수의 베이커리 브랜드를 사들이며 글로벌 외식 업계 내 주요 투자자로 자리매김했다. 아인슈타인 노아 레스토랑 그룹은 베이글 전문점으로 알려진 아인슈타인 브로스 베이글(Einstein Bros Bagels), 노아스 뉴욕 베이글(Noah's New York Bagels) 등을 보유·운영하는 미국의 베이글 전문 브랜드 운영 기업이다. 파네라 브레드는 베이커리 카페로 샐러드, 샌드위치, 커피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이다. 특히 JAB홀딩의 투자건 중 2017년에 인수한 파네라 브레드로의 투자는 집계 기간 동안 사모펀드 투자건 중 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딜로 꼽힌다.

“**지난 10년간 해외 주요 사모펀드는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동시에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외식 브랜드를 위주로 활발히 투자**”

”

JAB홀딩에 이어 미국계 사모펀드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Apollo Global Management)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7개의 외식 업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는 2010년, 10억1천만 달러를 투자해 햄버거 전문점 칼스 주니어(Carl's Jr.)와 하디스(Hardee's) 등의 모회사인 CKE레스토랑(CKE Restaurants)을 인수했다. 이어 2014년에는 게임과 피자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처키치즈(Chuck E. Cheese's)를 운영하는 CEC엔터테인먼트(CEC Entertainment)를 8천5백만 달러에 사들였다. 2018년 3월에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잭인더박스(Jack in the Box)의 자회사로 멕시코 메뉴를 주로 취급하는 패스트푸드 체인 큐도바레스토랑(Qdoba Restaurant)을 3억 달러에 인수하며 외식 업계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해오고 있다.

미국의 베인캐피탈(Bain Capital) 산하의 베인캐피탈프라이빗에쿼티(Bain Capital Private Equity)는 2010년 1월, 일본의 도미노 피자 주요 판매 업체인 히가인더스트리즈(Higa Industries)를, 2011년 1월 햄버거 체인 중 하나인 웬디스퍼스트키친(Wendy's First Kitchen)에 투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스카이라크(Skylark)을 인수하는 등 한 때 일본의 외식 프랜차이즈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한편 미국계 사모펀드 골든게이트캐피탈(Golden Gate Capital)은 미국 내 잘 알려진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면서 정체기에 진입한 업체 위주로 투자를 단행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2010년 7월에는 멕시코 요리 전문점 온더보드더(On the Border Mexican Grill & Cantina)에, 2011년 7월 피자 전문점 캘리포니아피자키친(California Pizza Kitchen)에, 2014년 7월에는 랍스터 전문 패밀리 레스토랑 레드랍스터(Red Lobster Hospitality)에 투자했다. 아울러 2017년 4월에는 브런치 레스토랑 밥에반스레스토랑(Bob Evans Restaurants)에 투자한 바 있다.

이처럼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는 고객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외식 프랜차이즈 혹은 외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다. 향후에도 해외 사모펀드는 이처럼 매력적 요인을 가진 외식업으로의 투자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3) 해외 사모펀드의 외식업 투자 회수

사모펀드의 외식 업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례도 다수 관찰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인수한 후,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와 인력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막대한 투자금으로 신메뉴 개발, 서비스 방식 개선 등 전략을 구사하며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 이처럼 각 투자 대상에 맞는 전략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킨 사모펀드는 IPO(기업공개), 타 사모펀드로의 매각(Secondary Sale) 등과 같은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 회수 사례 : 미국·유럽 》

Exit 대상 기업	사모펀드	시기	Exit 형태	내용
Burger King (미국)	3G Capital (브라질)	2012.06	Secondary Sale · I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브라질 사모펀드 3G캐피탈은 경영 악화에 빠진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Burger King)을 33억 달러(주당 24달러)에 인수한 후 상장을 폐지. 버거킹은 당시 약 7억 달러의 부채를 보유. 3G캐피탈은 인수 이후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매장 수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꾀함 2012년 버거킹의 주식 29%를 영국 투자회사 저스티스 홀딩스에 14억 달러에 매각하면서 뉴욕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통해 48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달성하고 이익 실현
CKE Restaurants (미국)	Apollo Global Management (미국)	2013.12	I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는 2010년 칼스 주니어와 하디스 체인을 운영하는 CKE레스토랑을 주당 1255달러로 약 6억9874만 달러에 인수. 이후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는 2013년 CKE레스토랑을 약 16억5천~17억5천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짐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인수 이후 약 3년간 CKE레스토랑의 매출은 15% 상승했으며, 점포 수는 미국 내 2%, 그 밖에 해외에서 53% 가량 증가하여 전세계적으로 8% 증가
Pret A Manger (영국)	Bridgepoint Advisor (영국)	2018.05	Secondary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기반의 사모펀드 브릿지포인트(Bridgepoint)는 독일계 JAB홀딩(JAB Holding)에 영국 외 미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 사업을 거느리고 있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프레타망제(Pret A Manger)를 매각. 브릿지포인트는 JAB홀딩에 프레타망제를 15억 파운드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 프레타망제는 약 10년 전 브릿지포인트가 3억4,500만 파운드에 인수한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옴. 2017년 프레타망제는 8억7,900만 파운드의 매출액을 달성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이 언론 보도 종합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 외식업에 투자한 미국·일본 등지의 해외 사모펀드가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 경영을 효율화하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켜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사례가 다수 관찰됨 ”

사모펀드가 외식업에 투자한 수많은 딜 중에서 2010년 3G캐피탈(3G Capital)의 버거킹(Burger King)을 33억 달러에 인수한 건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3G 캐피탈이 버거킹을 인수할 무렵, 버거킹은 패스트푸드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맥도날드와의 경쟁에서 밀려 약 6억3,870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하며 경영 악화를 겪고 있었다. 3G캐피탈은 인수 직후, 미국 증시에서 버거킹의 상장을 폐지하고 경영 효율화에 힘썼다. 불필요한 매장의 문을 닫아 매장 수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비즈니스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수익성 제고에 몰두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버거킹의 기업 가치는 빠르게 상승했고, 2012년 3G캐피탈은 영국 투자회사 저스티스홀딩스(Justice Holdings)에 버거킹 주식의 29%를 14억 달러에 매각하면서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48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미국의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는 2010년 인수한 CKE레스토랑의 엑시트(Exit)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CKE레스토랑에 대한 경영 효율화 작업에 힘입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CKE레스토랑이 보유하고 있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브랜드 칼스 주니어(Carl's Jr.)와 하디스(Hardee's) 두 개 브랜드의 매출액은 모두 약 15%, 점포 수는 미국 내 2%, 해외 53%로 전 세계적으로 약 8% 늘었다. 2013년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는 CKE레스토랑을 로크캐피탈그룹(Roark Capital Group)에 약 16억5천~17억5천 달러 금액대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모펀드는 인수 후, 성장 정체기에 있던 외식 브랜드·기업의 경영 효율화 작업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며 성공적으로 회수 ”

미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모펀드가 외식업으로 투자하고, 차익을 남겨 회수하는 사례가 다수 관찰되고 있다. 가령, 일본 대형 사모펀드로 꼽히는 유니슨캐피탈(Unison Capital)은 2008년 대형 스시 전문 프랜차이즈인 아킨도 스시로(Akindo Sushiro)에 144억엔을 투자한 바 있다. 유니슨캐피탈이 투자한 이후, 스시로는 2011년 9월 말 기준 매출액 988억엔을 기록하며 2007년 동기의 591억엔 대비 69%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후 2012년 9월, 유니슨캐피탈은 유럽계 사모펀드 퍼미라(Permira)에 아킨도 스시로를 787억엔에 매각한 바 있다.

유니슨캐피탈에 이어 아킨도 스시로를 인수한 퍼미라는 2017년 3월, 기업공개(IPO)를 통해 도쿄증권거래소에 주당 3,600엔의 가격으로 다시 상장시켰으며, 약 700억엔의 자본금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퍼미라는 일본 내 대규모 쌀 도매 기업이기도 하면서 기존 아킨도 스시로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던 겐키스시(Genki Sushi)라는 이름의 스시 전문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신메이(Shinmei)에 스시로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퍼미라는 보유하고 있던 남은 스시로 지분 33%를 주당 4,000엔의 가격으로 380억엔에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으며, 신메이는 스시 체인 1위, 5위 업체를 손에 넣으면서 전략적 투자를 행한 셈이 됐다. 신메이는 이번 스시로 인수를 통해 스시로와 겐키스시의 해외 시장 확대를 꾀할 목적을 밝힌 바 있다. 퍼미라가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발표한 바에 따르면, 스시로의 매출액은 퍼미라가 스시로를 인수했던 2012년 1,110억엔에서 최종적으로 투자 회수를 완료한 2017년 1,550억엔으로 약 40%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해당 투자는 사모펀드와 외식 기업에게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 회수 사례 : 일본 》

Exit 대상 기업	사모펀드	시기	Exit 형태	내용
Akindo Sushiro (일본)	Unison Capital (일본)	2012.09	Secondary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대형 사모펀드 유니슨캐피탈은 2008년 스시 대형 프랜차이즈 전문점 아킨도 스시로에 투자. 투자 이후 2011년 9월말 기준 스시로의 매출은 998억엔을 기록했으며 2007년 9월말 591억엔 대비 큰 폭 성장 2012년 9월, 유니슨캐피탈은 아킨도 스시로를 매각할 준비 중이었던 가운데, 유럽계 사모펀드인 퍼미라가 787억엔에 스시로를 인수. 이후 퍼미라는 2017년 3월 기업공개를 통해 도쿄증권거래소에 아킨도 스시로를 상장해 약 700억엔 가량의 자본금을 획득 이후 2017년 9월, 퍼미라가 스시로에 보유한 남은 지분 약 33%를 일본의 쌀 도매업체이자 스시로와 기존에 경쟁 구도를 형성하던 겐키스시(Genki Sushi)의 소유 기업 신메이(Shinmei)에게 매각. 퍼미라는 신메이에게 스시로의 남은 지분을 주당 4,000엔의 가격으로 약 380억엔에 되팔아 투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
	Permira (영국)	2017.03 2017.09	IPO Trade Sale	
Komeda Holdings (일본)	Advantage Partners (일본)	2013.01	Secondary S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드벤처파트너스(Advantage Partners)는 나고야 기반의 커피 프랜차이즈 '고메다 커피' 체인의 운영 기업 고메다홀딩스 지분 100%를 MBK파트너스에 4억8,000만 달러에 매각하며 약 3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짐. 어드벤처파트너스는 2008년 고메다홀딩스를 1억4,600만 달러에 인수 MBK파트너스는 기존 보유하고 있던 고메다를 도쿄증권거래소(TSE)에 상장시키며 일부 회수. 고메다의 발행 주식수는 4,380만주이며 공모가를 환산한 시가총액은 9억800만 달러로 약 1,000억엔에 달함. MBK파트너스는 이번 IPO로 총 3,070만 주를 주당 1,960엔의 가격으로 되팔아 총 602억엔(보유 지분의 70%)을 회수할 수 있게 됨. MBK는 IPO를 통해 3.3배의 투자 수익(MoE), 내부수익률(IRR) 기준 59.8%의 수익을 달성. 한편 MBK는 고메다홀딩스에 투자한 지 1년 반 후, 자본 재조정(Recapitalization)을 실시해 원금의 상당 금액을 회수한 바 있음 MBK파트너스는 2017년, 남은 보유 지분 1,374만주를 주당 1,768엔의 가격으로 되팔아 243억엔의 자본금을 획득. 전반적으로 고메다홀딩스에 대해 약 5배의 투자 수익을 달성
	MBK파트너스 (한국)	2016.06	IPO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언론 자료 종합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시사점 및 투자 전략

증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외식업에 대한 투자 검토 필요

최근 국내 외식업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외식업경기지수에서 외식업 경기 둔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고, 최저임금·임대료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면서 외식업 및 관련 종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식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수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어들였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외식 시장에 대한 투자도 증가해왔다는 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

전세계적으로 외식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투자자들은 외식업에 대해 투자를 망설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에 투자한 사모펀드 중 최근 높은 성과를 거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국내 외식 브랜드에 투자했던 일부 사모펀드의 경우, 계획했던 투자회수 시기에 엑시트(Exit)를 하지 못하고, 보유한 기업을 매수할 대상을 지속적으로 탐색 중이다. 일부 사모펀드가 투자한 외식 프랜차이즈는 2013년 국내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한식 등 외식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출점 규제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식 프랜차이즈 추가 출점이 제한되었고, 사모펀드는 외식 브랜드 투자 전에 구상한 프랜차이즈 관련 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가시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 지난 10년 간 전 세계 외식업으로의 투자 증가 ... 글로벌 투자 흐름에 대한 높은 이해도 필수 ”

국내 외식산업 투자 전략

01 / 증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외식업에 대한 투자 검토 필요

투자 기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외식업 유망 섹터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 필요

/ 02

03 / 세컨더리 세일 등 자사에 적합한 다양한 엑시트(Exit) 플랜 고려

외식 기업·사모펀드 각자의 역량 발휘 ... 시너지 기대 가능

/ 04

Source: 삼성KPMG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 1인 가구·맞벌이 가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 소비자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변환 ... 환경 변화의 동인에 주목하며 선제적 대응 ”

둘째, 최저임금 상승 및 2018년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제도 변화가 외식 경영 환경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로 외식 프랜차이즈 점주의 우려가 깊어지고, 투자자들의 경우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로의 투자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띠게 됐다.

그러나 외식업은 인구통계학적·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외식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M&A 매물에 촉각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1인 가구·맞벌이 가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 과거와는 다른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등 외식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외식업은 불황기에도 타 산업대비 경기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특성을 가진다. 지금껏 외식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도 외식을 중단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들은 보다 합리적인 외식 소비에 대해 고민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외식업은 불황기에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투자 기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외식업 유망 섹터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 필요

외식업에 투자 시, 투자 기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를 결정해야 하며, 외식업 하위에 있는 유망 섹터를 선별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외식업 섹터 중에서 유망 분야를 가려내는 혜안 필요 ... 외식 브랜드 중 '옥석 가리기' 더욱 중요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공정계약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M&A 추진 이전에 레스토랑 경영 전반에 대해 진단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체계화로 인한 수익 증대 가능성과 신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 경영 효율화로 볼 수 있는 효과 등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즉, 다수의 브랜드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국내 M&A 매물 중 캐시플로(Cash Flow)가 안정적인 곳을 선별하는 동시에 독자적 브랜드를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중 매출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높은 브랜드를 찾는 혜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과 같은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으로 투자할 외식업의 세부 섹터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 사모펀드의 투자 추이를 분석했을 때, 외식 프랜차이즈 포트폴리오상의 세부 섹터 변화가 관찰된다. 외식 시장의 세부 섹터로 분류되는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 캐주얼, 퀵 서비스 레스토랑 중에서도,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외식 시장 내 하위 섹터별 메인스트림(Main Stream)이 바뀌고 있다. 특히 외식업은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매우 민감한 산업 중 하나다. 따라서 투자자는 국내 소비자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선호되는 외식 섹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식문화 패턴이 웰빙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건강에 이로운 신선한 재료를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강조하며, 위생 관리와 매장 콘셉트를 고도화한 외식 브랜드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기별로 소비자가 자주 찾는 레스토랑의 객단가 및 외식 메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컨더리 세일 등 자사에 적합한 다양한 엑시트(Exit) 플랜 고려

글로벌 사모펀드는 타 사모펀드에게 자사가 보유했던 지분을 재매각하는 세컨더리 세일(Secondary Sale), 기업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사모펀드가 투자하여 경영하던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자사만의 역량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세컨더리 투자를 고려하는 사모펀드가 국내에도 증가하고 있다.

“ 기존 다른 펀드가 보유했던 매물·기업을 다른 앵글로 바라보며 투자하는 사모펀드 증가 ... 해외 외식업에서 활성화된 세컨더리 거래 국내에도 본격화



일본에서는 2010년 이후 외식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세일을 통한 엑시트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 중이다. 국내 외식업의 M&A 역사에서도, 과거 두산그룹이 보유했던 한국 버거킹(법인명 비케이알)을 2012년 국내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에 매각한 바 있다. 그 뒤 VIG파트너스는 한국 버거킹을 2016년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로 매각하는 등 한국 버거킹에 대한 매각과 매수가 이어졌다. 일본과의 시장 환경이 유사한 국내에서도 세컨더리 투자 사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기업들은 투자 시, 경영 전략 외에 기업 가치를 올리는 동시에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다양한 투자금 회수 전략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외식 기업·사모펀드 각자의 역량 발휘 ... 시너지 기대 가능

외식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 오너 가운데 테마별 요리와 음식에 대해서는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지만, 경영 기법이나 세무, 회계 측면에서는 길잡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국내 식음료 프랜차이즈를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 성장성과 수익성 등 재무적 성과를 거둔 곳을 살펴보면, 사모펀드의 경영 노하우가 배경에 놓인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즉, 외식 기업과 사모펀드의 역량을 극대화 한 M&A 케이스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식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들이 협업을 하여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있다. 사모펀드 단독으로 인수한 외식 기업에서 높은 성장률과 차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수의 사모펀드가 컨설팅리데이션(Consolidation)하여 일종의 공동구매 방식으로 여러 개의 외식 브랜드를 한 번에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외식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식자재와 기술, 서비스 방식, 경영 등 다방면으로 투자되어 기업의 성장 기반을 견고히 닦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를 받은 외식 기업은 부채에 대한 부담 없이 빠르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Appendix.

《 2018년 외식 프랜차이즈 주요 Deal List (1/3) 》

(백만 달러)

완료일	피인수기업	인수기업	금액	내용
2/15	Simmons Bars (영국)	Lonsdale Capital Partners (영국)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계 사모펀드 론즈데일캐피털파트너스(Lonsdale Capital Partners)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시몬스바(Simmons Bar)를 인수. 시몬스바는 런던 중부 전역에 걸쳐 12개의 바를 운영 중이며, 2017년 기준 1,000만 파운드의 매출액을 기록
3/30	Sukesan (일본)	Unison Capital (일본)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계 사모펀드 유니슨캐피탈(Unison Capital)은 일본의 우동 전문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스케상 우동(Sukesan Udon)' 브랜드로 레스토랑 42개를 운영 중인 스케상(Sukesan)을 인수 유니슨캐피탈은 외식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광범위한 투자 경험을 토대로 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스케상의 신규 점포 개설을 지속하며 성장도 모하고자 함
5/7	Barteca Holdings (미국)	Del Frisco's Restaurant Group (미국)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스테이크 하우스로 유명한 델프리스코 레스토랑 그룹(Del Frisco's Restaurant Group)은 설립된지 20여년 된 타파스 레스토랑 바테카(Barteca)를 3억2,500만 달러에 인수. 이번 바테카 인수를 통해 델프리스코는 비즈니스 확장 및 신규 고객 유인을 목표로 함
6/12	The Quizno's Master (미국)	High Bluff Capital Partners (미국)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샌디에고에 기반을 둔 사모펀드 하이블러프캐피털파트너스(High Bluff Capital Partners)는 미국 대표 샌드위치 체인점 중 하나인 퀴즈노스(Quizno's)를 인수 지난 10년간 소비자 식생활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체인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가운데, 하이블러프캐피털파트너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퀴즈노스를 재도약 시킬 계획을 밝힘 퀴즈노스는 샌드위치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매력을 지니고 있는 브랜드인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 5천여 개에 달했던 퀴즈노스 매장은 2007년, 800개 지점으로 감소한 바 있음

Source: Mergermarket, 언론 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정리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 2018년 외식 프랜차이즈 주요 Deal List (2/3) 》

(백만 달러)

완료일	피인수기업	인수기업	금액	내용
7/11	Luckin Coffee (중국)	GIC Private; Legend Capital Management; Beijing Joy Capital Investment Management; Centurium Capital Management (중국)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2,500여개 매장을 신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 중국 베이징 기반의 커피 프랜차이즈 루이싱커피(Luckin Coffee)는 중국 내 스타벅스의 강력한 경쟁 브랜드로 꼽힘 루이싱커피는 스타벅스를 연상시키는 제품군과, 합리적인 가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주문을 통한 배달 서비스 등을 필두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 루이싱 커피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반의 투자회사 센터리움캐피탈(Centurium Capital),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부터 총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라운드 투자를 유치
8/9	Fat Patty's (미국)	ARC Group (미국)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딕윙즈앤그릴(Dick Wings & Grill)의 모기업 아크그룹(ARC Group)은 캐주얼 레스토랑 부문의 팻패티(Fat Patty's)를 1,230 만 달러에 인수하며 자사의 프랜차이즈 포트폴리오를 강화. 2017년 팻패티의 매출액은 1,100만 달러를 기록
8/14	Red Hot & Blue Restaurants (미국)	AJB Capital (미국)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드핫&블루레스토랑(Red Hot & Blue Restaurants)은 1988년에 설립돼 30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BBQ 레스토랑 체인으로, 미국 내 6개 주에서 17개 매장을 보유 AJB캐피탈(AJB Capital)은 직원 및 식당 시스템 및 인프라에 투자했으며, 고객 경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9/13	Jamba Juice Company (미국)	Focus Brands (미국)	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애틀랜타 기반의 포커스브랜드(Focus Brands)는 시나본(Cinnabon), 언티앤스(Auntie Anne's) 등의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 포커스브랜드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혼합해 스무디 및 주스, 식사 대응 음식을 제공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관련 브랜드로 고객 로열티와 브랜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잠바주스(Jamba Juice)를 1억9,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인수. 포커스브랜드는 이번 인수를 통해 건강 메뉴 추가 개발, 소비자 지향 기술 확장 등으로 브랜드를 개발시켜나갈 목적이라고 밝힘

Source: Mergermarket, 언론 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정리

외식업의 현재와 투자 기회

《 2018년 외식 프랜차이즈 주요 Deal List (3/3) 》

(백만 달러)

완료일	피인수기업	인수기업	금액	내용
9/25	Sonic Corporation (미국)	Inspire Brands (미국)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아비스 (Arby's) 외 버팔로와일드윙스(Buffalo Wild Wings) 등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체 인스파이어 브랜드(Inspire Brands)는 23억 달러에 소닉(Sonic Corp.)을 인수 소닉은 자동차에서 식사를 하는 드라이브인(Drive-in) 형태의 패스트푸드 전문점 '소닉드라이브인(Sonic Drive-in)' 브랜드를 운영 중 소닉드라이브인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받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와는 달리, 매장 앞 주차공간에 차를 대고 주문을 하면 롤러스케이트를 탄 종업원이 차까지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10/9	Nordsee (독일)	Kharis Capital (스위스)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트제(Nordsee)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약 350개의 레스토랑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 노트제는 주로 생선 및 해산물을 취급하는 독일 기반의 해산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로 유럽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꼽힘 스위스 투자회사 카리스캐피털(Kharis Capital)은 노트제를 인수함으로써 유럽 내 패스트푸드레스토랑 부문을 선도하는 플레이어로 도약시킬 것을 목표
11/6	Ojos Locos (미국)	ComVest Investment Partners (미국)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호스로코스(Ojos Locos)는 2010년에 설립된 히스패닉 중심의 스포츠 바로 텍사스에 7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체인 오호스로코스가 미국 전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자본을 컴베스트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ComVest Investment Partners)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12/19	Hell Revolution (뉴질랜드)	Castlerock Partners (뉴질랜드)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기반의 투자회사인 캐슬록파트너스(Castlerock Partners)는 개인투자자(Private Individuals) 두 명으로부터 피자 체인 헬레볼루션(Hell Revolution)을 인수

Source: Mergermarket, 언론 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정리

Business Contacts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 전문팀

Deal Advisory

김이동

전무

T: 02-2112-0343

E: yidong@kr.kpmg.com

원정준

상무

T: 02-2112-0549

E: jungjunwon@kr.kpmg.com

박영걸

상무

T: 02-2112-0749

E: younggulkpark@kr.kpmg.com

Audit

신장훈

부대표

T: 02-2112-0808

E: jshin@kr.kpmg.com

한상일

전무

T: 02-2112-0832

E: sangilhan@kr.kpmg.com

이용호

전무

T: 02-2112-0677

E: yongholee@kr.kpmg.com

이종우

상무

T: 02-2112-0648

E: jongwoolee@kr.kpmg.com

박정수

상무

T: 02-2112-0326

E: jungsoopark@kr.kpmg.com

박관중

상무

T: 02-2112-7403

E: kwanjongpark@kr.kpmg.com

정현진

상무

T: 02-2112-0827

E: hchung@kr.kpmg.com

황구철

상무

T: 02-2112-0293

E: khwang@kr.kpmg.com

김시우

상무

T: 02-2112-0893

E: siwookim@kr.kpmg.com

kr.kpmg.com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